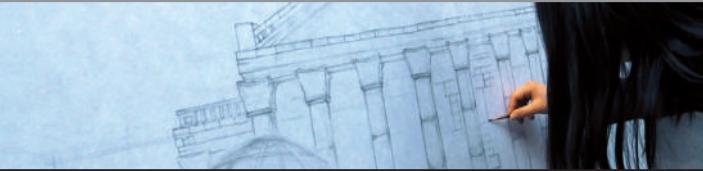


4》 국제캠퍼스자치공간부족



6》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분석



예비졸업사정 시행안내

대상자 : 2014학년도 후기(2015년 8월) 졸업 대상자
가. 금학기 포함 8학기 이상 재학생 나. 금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예비졸업사정 기간 : 2015. 3. 30.(월) ~ 2015. 4. 3.(금)
졸업대상자확인기간 : 2015. 4. 1.(수) ~ 2015. 4. 3.(금)
예비졸업사정 최종 결과확인 : 2015. 4. 13.(월)~



국제캠퍼스 총학 6년만에 총투표 47대 총학생회가 6년만에 총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수가 24~25일 이틀간 과반을 넘지 못해 25일 연장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투표율 50.32%로 마감됐다. 투표결과 최대 관심사였던 한대련 탈퇴여부는 '탈퇴'로 결론났다. 10년만의 일이다. (관련기사 3면)

48년 된 정경대학관, 시설·장비 모두 '낙후' 교육공간 1개 당 재학생 수 159.3명 서울캠 최대

정경대학 공간·시설 점검

권윤지 기자 happitice@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 권유진(사회학 2014) 양은 학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경대학의 강의실을 대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흡사 수강신청을 방불케 하는 강의실 대여 경쟁에서 밀려 모두 실패했다.

권 양은 “애초에 정경대학에는 빌릴 수 있는 강의실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과가 신설된 이후로 저녁 시간에 대여할 수 있는 강의실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공간이 부족해 짤짜매는 상황 탓에, 정경대학생



들이 ‘카페를 가거나, 다른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리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나마 강의실 대여에 성공해도, 골칫거리는 남는다. 낙후된 기자재 탓이다.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고은(정치외교학 2014) 양은 “컴퓨터를 이용해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가 느리고, 빔과 스크린 화면이 잘 맞지 않아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강의실의 기본기능이 수업인데,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김 양만의 생각은 아니다.

정경대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고시반들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특히 언론고시반은 연극동아리와 배

드동아리 옆에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언론고시반 박민형(언론정보학 2007) 실장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는 고시반의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체나 필기 시험 준비 기간에는 고시반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물론 모든 단과대학마다 ‘공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경대학의 문제는 그중에서도 심각하다.

▶5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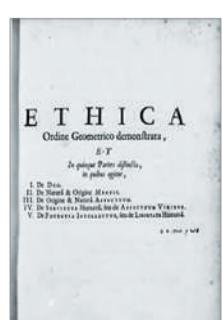
자유 향하는 기하학적 형이상학 스피노자의 『윤리학』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⑮

이경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별로 두껍지 않은 한권의 책이 철학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거다. 이거 하면 철학을 뛸 수 있겠구나”하면서 그 책을 읽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왜지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책을 기피할 것인가? 스피노자(1632~1677)의 『윤리학』이 바로 그런 책이다. 제목에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이라는 설명이 불

어 있으며 실제로도 정의, 공리, 정리의 순서로 쓰여진 이상한 철학책.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학’이라고는 하지만 1부는



신관에 기초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형이상학, 2부는 인식론, 3부는 심리학으로 되어 있고, 4부 인간의 예술, 5부 인간의 자유에 이르러서야 윤리적 주제들을 다룬다.

이 책의 독특한 점은 다양한 주제들이 연관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세계의 제 1 원인인 신에 대한 정의로부터 5부 인간의 자유와 지복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적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의 실천을 신에 대한 형이상학으로부터 인식론, 심리학 그리고 사회 철학을 거쳐 도출해낸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철학자의 꿈일까 아니면 과대망상일까?

23살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한 스피노자는 비록 과문의 조건인 자신의 이단적인 사상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유대교와는 사뭇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신관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유대교적인 것에서 사물의 제1원인으로서의 신이라는 그리스적, 철학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신관에 기초해서 인간은 비록 모든 사물을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면서도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페터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핀테크 (FinTech)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7면



시선

사설

눈물겨운 정경대의 '1억' 요청, 학교는 그동안 대체 뭘 했는가

학내에서 가장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경대학(정경대) 학생들이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오랜 불만을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섰다. 학교 측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라는 듯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경대 학생들에게 있어 나름대로 장구한 연혁을 이어온 우리학교 SPACE21사업의 역사는 곧 '희망고문과 소외'의 역사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 2007년, 당시에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정경대 학생들은 '캠퍼스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개발 조감도 속의 정경대 신축건물을 보며 큰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틈엔가 정경대의 이름은 신축건물들 사이에서 사라져갔다. 2010년에는 정경대의 신축이 '2차 사업계획 이후'로 공식 유예되면서, 2차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1~2년 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도 '2차 이후의 사업계획'은 개념만 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SPACE21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동안, 정경대가 제기한 모든 종류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요구사항들은 'SPACE21만 기다려 달라'는 식의 수사 속에 함몰돼 갔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정경대의 창틀은 창문이 닫히지도 않을 정도로 뒤를려갔고, 강의실의 빔 프로젝터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갔다.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을 언제 완공될지 기약도 없는 SPACE21로만 수렴시키는 사이에, 당장 '지금, 여기'에서 교육받아야 할 교육수혜자들은 고통을 쌓아온 것이다.

새내기가 입학했다가 졸업하는 4년 가량을 '한 세대'라고 칭한다면, 공간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 모든 학생 구성원은 무대책으로 방치된 채 대학 생활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금은 학교가 '현재 접근 가능한' 모든 대안의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유풍경이나 가용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일이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나 장비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령 일회성 행사비 등과 같이 불요불급한 데 쓰는 지출액을 끌어 모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마땅한 노릇이다. 이 같은 노력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학교 측이 교육 수혜자인 학생을 위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이번 정경대 학생 측에서 학교에 요청한 특별 예산 편성액의 규모는 대략 9,0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대학의 한 해 운영비가 약 5,000억 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0명에 달하는 학생 구성원을 위한 1억 원 남짓한 비용은 학교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것을 사전에 조치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직접 움직여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빚어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일말의 의지를 가진 상황이라면, 당분간 SPACE21은 잊고 '지금, 여기'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모을 때다.

성범죄 위험도 동대문구 23위, 영통구 225위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16 ~ 3. 2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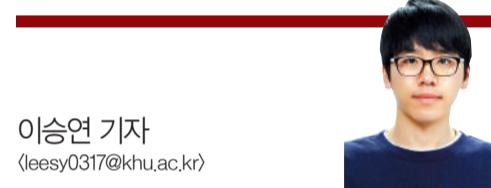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결과 우리학교 학생 107명이 합격했다.(2015년 CPA 1차 107명 합격, 전년대비 21명 증가/대학주보 온라인, 2015.3.17) 이는 2014년 1차 합격자 86명보다 21명 늘어난 숫자다. 공인회계사(정현재) 최연식(회계세무학) 주임교수는 경영대학 구성원에게 전하는 이메일을 통해 "경영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차 시험의 성과가 6월에 있을 2차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Give경희'



이 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6년 만의 총투표와 남은 문제들

총투표, 그 다음의 의미가 더 크다



이승연 기자
lees0317@khu.ac.kr

국제캠퍼스에서 6년 만에 열린 총투표가 연장투표 끝에 투표율 50.3%로 성사됐다. 총학에서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중요한 투표였고, 그 만큼 투표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투표율 문제에서 늘 비판의 화살은 우선 학생대중을 향해왔다. 다만 이번 총투표에 관해서는 '학생대중의 무관심'보다 총학의 준비부족 탓이 더 커 보인다.

우선 총투표를 발의한 배경이 '학생들의 뜻을 반영해, 향후 전개할 사업을 결정하겠다'라면, 추진과정부터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제캠 총학 홈페이지와 총학에서 임시사용 중이라고 밝힌 네이버 카페,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총투표와 관련된 회의록은 찾을 수 없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투표독려, 공고와 같은 '결과통보'만 간간히 눈에 띌 뿐이다.

그렇게 '어떻게든' 마련된 투표안건 4가지가 등장했다. 이후 총투표 흥보자료를 통해 총학생회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각 안건별 찬·반의 입장장을 다뤘다. 문제는 부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총학생회는 국제캠

퍼스는 부총장이 1명인 반면, 서울캠퍼스는 6명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양 캠퍼스의 부총장은 총 5명이고, 각 캠퍼스를 관할하는 부총장은 각각 1명씩 있다. 재정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은 양 캠퍼스 모두를 관할하고, 의무부총장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캠퍼스에서 '상주' 할 수밖에 없다. 정확성을 위해 보면 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안건별 '보기'였다.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점이 투표의 문제를 지적받을 정도다. 하지만 대학구조 개혁평가에 대한 보기는 '올바른 대학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와 '대학평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였다. 어느 학생이 올바르지 않은 대학을 바라겠는가. 법인전입금의 교비납부 여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낸 등록금은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는 일 아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총학의 의지까지 편 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투표는 분명 학생들의 학내사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일 수 있었다. 하지만 투표결과만으로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어려워 보인다. 양 캠퍼스에 차별이 있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추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법인전입금 교비납부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의사를 구체화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6년 만에 성사된 총투표, 그 다음의 의미가 더 크다.

위험도 순위에서 23위, 국제캠퍼스가 속한 용인시 기흥구는 225위를 기록했다.(서울캠 주변 성범죄 고위험 지역 5곳, 국제캠 상대적으로 저위험/대학주보 온라인, 2015.3.23) 성범죄위험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 발생 범죄율과 인구밀도, 범죄 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개발한 지수로, 높을수록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구는 성범죄위험도(118.6), 강간위험도(121.9), 성추행위험도(113.5) 모두 고위험(11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성범죄위험도(83.5)와 성추행위험도(89.7)는 저위험(80점이상 90점미만)에 속했고, 강간위험도(77.0)는 초저위험(80점 미만)이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대인관계' (경희金_7628, 2015.3.17)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글쓴이는 신입생과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밥이나 술을 먹는데, 같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후배들을 보면 후배들의 술 셔틀, 밥 셔틀이 된 기분이라며 불쾌하다는 글을 남겼다. 댓글로 "위와 같은 사례는 선·후배뿐만 아니라 동기들 사이에서도 매우 불쾌한 경우이며 식사나 술자리에서 핸드폰 사용을 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미지-상식으로 굳기 전 우리학교의 강점 '믿게 해야'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배우 이태임 씨와 아이돌 예원의 '욕설논란'은 시쳇 말로 좋은 떡밥이었다. '여자 연예인'이 활영 중 '욕'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이목이 쏠렸다. 와글와글 떠드는 이야기 속에서 1round는 배우 이태임의 패배였다. 그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데 지난 27일 당시 활영영상이 공개됐다. 2round가 열리는 서막 앞에 영상에 댓글이 달렸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난 딱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미지란 것을 정의내리기에 가장 탁월한 문장들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과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상의 형상이다. 결국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지난 23일 발표한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보고서에 소개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니섹스 캐주얼이 어울리는 20~24세 문화예술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의 경우 신입생 중 남자의 비율이 많았고, 예술계열보다 이·공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소속 학과가 더 많다. 학생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문제는 이미지가 사실과 다른 것과, 그 의미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이다. 각자의 이미지가 모이면 하나의 통념이 되고, 어느새 상식이 되기 마련이다. '그건 원래 그래'라는 아주 견고한 상식은 허물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학교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요소를 읽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변에 '경희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으면, 주로 나오는 대답은 아름다운 본관 및 건축물 또는 벚꽃으로 뒤덮인 캠퍼스 등이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 이를테면 학문 연구와 발전, 교육이념의 가치와 전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학교를 듣고 떠올리는 대답이 아름다운 캠퍼스나 벚꽃놀이 등에 치중돼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09년 경희대에 대한 '무색무취'라는 이미지에서, 2015년으로 이미지가 변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미지로 고착화되진 않은 셈이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으로 대표되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이나, 후마니타스 교육을 통해 소양을 갖춘 지적 인격체를 길러낸다는 강점이 이미지, 즉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에 스며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연예계의 가십, 혹은 논란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연예기획사 임원은 이런 말을 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또 외부에서 '경희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이뤄나간다고 보게, 아니 더 넘어서 '믿게' 할 것인가. 이제 막 그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난 딱 보고 그럴 줄 알았다'라는 댓글이 없도록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국제캠 총학 10년만에 한대련 탈퇴 이념논리에 거부감, 학생들 등돌려

투표 끝에 한대련 탈퇴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지난 27일 총투표결과 투표자 6,159명 중 5594명(69.6%)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탈퇴'에 찬성했다. 2005년 한대련 출범부터 함께 한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10년만에 탈퇴하는 것이다.

일부 절차는 남았지만, 학생들이 '총투표'를 통해 내린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온라인의 해당 공지에는 '해냈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한때 '대표적인' 대학생 단체로 인정되던 한대련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출범 당시 한대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가 중심이 돼 대학사회의 담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활동을 목표로 했다. '이념 중심'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한대련은 대학생의 '생활중심' 활동을 강조했다.

이후 등록금 문제,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던 한대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등록금을 사회 문제로 이슈화시키면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한대련의 '반값등록금' 운동에 호응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한대련 자체가 대학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졌다. 국제캠 총학은 2011년, 전국 60개 대학이 참가한 한대련 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한대련 의장을 배출하는 등 중주적인 위치에 서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이슈로

대표 학생 조직으로 부상

하지만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대안이나 비판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대련은 스스로 주도해온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그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대련은 학생 여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 문제에 몰두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운

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학생여론이 등을 돌린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고려대 새내기 콘서트 사건'이었다. 고려대에서 열리기



2012년 발생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한대련 반대 여론에 결정적이었다.



로 한 한대련의 새내기 콘서트가 고려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대련 소속 총학이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고려대 학생 사회에서 한대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을 뿐 아니라 다음해 한대련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고려대 총학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2012년 발생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한대련 반대 여론에 결정적이었다. 당시 통진당 중앙위원회 회의

중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대련 의장을 맡고 있던 국제캠 제44대 총학 정용필(기계공학 2006) 전 회장은 당시 대학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진당 중

앙위원회 회의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2월부터 총선을 대비해 통진당 청년 비례선출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가해 왔기 때문에 그날도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있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한대련에 대한 학생여론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한대련이 폭력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기성 정치를 담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삽기 때문이다.〈대학주보 1516호 (2012.05.21.)〉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한대련 반대 최고조

이런 과정에서 2013년 제45대 총학 김나래(기계공학 2008) 전 회장이 다시 한 번 한대련 의장을 맡으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김 회장은 "지난해까지 계속 성장해왔던 한대련이 일시적으로 힘들어졌다 하여 외면할 수 없었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대학생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그 이유를 말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끊지 않았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대련에 서 키 리졸브 훈련 반대성명'을 내는 등의

활동 역시 학생여론과는 동떨어지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학교 국제캠 총학 홈페이지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냐, 아니면 정치꾼을 표방한 뱀파랑이냐?'라는 문구로 바뀌는 해킹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학주보 1543호 (2013.05.27.)〉

학생조직에 대한 논객으로 유명한 하이네(필명)는 한대련 몰락에 대해 "이념 논리에 갇혀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등록금 정국을 주도하면서 내부 역량을 소진한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한대련 계열 총학으로 불리기도 했던 'Power' 선본의 연임이 끝났다. '친KNU' 선본은 학생여론을 고려해 선거기간 '한대련 탈퇴 여부 총투표 실시'를 전략적으로 내세웠고, 결국 당선-총투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국제캠 총학은 한대련 탈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가를 둘러싼 대학구조개혁 등 이슈의 해결은 단일 대학 활동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김용석(화학공학 2009) 회장은 "단일 대학만으로도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 대학들의 목소리와 함께한다면,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대학관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일축했다.

투표율 50.3%
총투표 성사
선택지 편향 논란

국제캠 총학 총투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n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실시한 총투표가 연장투표 끝에 유권자 12,239명 중 6,159명, 투표율 50.3%로 성사됐다. 투표결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 ▲법정부담금 교비납부 반대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 ▲양 캠퍼스 차별 존재 등 재학생의 의견이 모아졌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대련 탈퇴'는 찬성 4,285표(69.6%), 반대 1,974표(30.4%)로 집계됐다. 한대련 규약 2장 회원 6조 (탈퇴) ②항에 따르면 '본회의 탈퇴는 각 학교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개별 조직 단위의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가입결정을 내렸던 의사결정기구에 준하거나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는 '총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한 것인데, 총투표는 총학 회칙에 '최고심의·의결 투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퇴'가 확정된 셈이다.

한편 투표 안건 별 '선택지'가 적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적지 않다. 우선 등록금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여부를 묻는 안건2의 선택지는 "우리가 낸 등록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와 "학교와 함께 고통분담 해야 한다"이다. 투표의 선택지가 상반되는 입장을 대표한다고 해도, 질문 자체의 편향성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낸 등록금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접근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당성을 묻는 안건3의 선택지 역시 "올바른 대학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와 "대학평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였다. 사실상 올바른 대학을 바라지 않는 학생이 없고, '현재의 대학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미 규정내린 상태의 질문지인 점이다. 윤지윤(스페인어학 2014) 양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지였다"라며 "형식적인 투표 행위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선택지 편향논란에 대해 김 회장은 "홍보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세부터 시작하는 온 가족 저지방 우유 매일우유 저지방 & 고칼슘 2%

매일 마시는 그 우유를
2% 저지방 우유로 바꾸면
아이의 성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유 속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 더 채웠습니다
영양밸런스는 맞추면서 우유의 고소한 맛은 살아있어요

매일, 우유의 힘
매일 저지방 우유 2.1.0



기획

학내 자치공간 부족 심각… ‘갈 곳 없는 학생들’

국제캠 자치공간 문제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국제】 올해 초부터 공과대학 오른쪽 건물이 공간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소속 밴드 동아리 ‘카오스’의 거취문제 때문이다. 현재 카오스 동아리방의 위치는 공과대학 오른쪽 건물 꼭대기다. 내부 공간 부족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과대학 행정실 측이 전자정보대학 소속 동아리인 카오스에게 지속적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오스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전자정보대학도 공간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절박한 심정에 학교 내 모든 단과대학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 공간이 없다는 부정적 답변만 얻었다. 카오스 백두산(전자·전파공학 2009)전 회장은 “정말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것 같다”라며 “밴드에게 동아리방은 그저 모임의 장소가 아닌 동아리의 존속이 달린 장소라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은 같은 단과대학 소속 밴드 ‘뮤트’ 또한 마찬가지다. 뮤트의 경우 지난해 3월 아예 다른 공과대학 동아리에게 방을 인계하고 나와 버렸다. 악기와 물품은 전자정보대학 창고에 넣어 둔 채로 동아리 활동은 1년이 넘도록 무기한 연기 상태다. 학주공간이 없어 따로 연주조차 힘들다. 뮤트 정성호(전자·전파공학 2013) 회장은 “공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래 공간을 제공해야 할 전자정보대학 조차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라며 “어느 쪽도 책임이 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안에 우리가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1997년 학부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99년 전자정보학부가 신설되었다. 03년 다시 공과대학 내부의 개편이 이루어 지면서 전자정보대학은 독립했다. 이러한 잣은 편제 개편 속 ‘이사’의 시기를 놓쳐 미처 끌어오지 못한 동아리방들이 단과대학 별 공간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것이다.

공과대학 행정실은 자치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한계까지 왔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과대학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총 9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 인원만 3,200명이 넘는 대규모 단과대학이지만 건물은 80년에 지



공과대학관 3,200명 넘는 인원 80년에 지어진 건물 1개 사용

전자정보대학관 응용과학대학과 건물 함께 사용

생명과학대학관 부족한 넓이 개미집 구조형태의 안전문제

외국어대학관 동아리방 함께 사용, 학과방, 강의실 전전하기도

어진 공과대학관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원이 증가하고 공간 활용이 힘들어지면서 재작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공간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과대학 행정실 조지원 행정실장은 “공간 문제는 현재 공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계장은 “공과대학은 특성상 다양한 연구 기자재와 실험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금은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변변한 공간마련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황은 전자정보대학 또한 다르지 않다. 응용과학대학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전

자정보대학에는 26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그중 카오스를 제외하더라도 6개 동아리가 공간이 전무한 상태다. 전자정보대학 행정실 조지원 행정실장은 “두 단과대학이 함께 쓰는 전자정보대학의 공간问题是 굉장히 복잡하다”라며 공간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실장은 “연구 공간, 강의 공간 등 공간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치공간 또한 같은 맥락의 문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정보대학은 교수 휴게실을 통합시켜 운영하고, 컴퓨터공학과 동아리방을 리모델링해 학생 공용공간을 만들어 내는 등 기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절대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공간이 없는 동아리에게 동아리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자치공간들 중 공용공간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해결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손권(전자·전파공학 2010) 회장은 이러한 행정실의 움직임에 관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행정실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기존의 동아리 공간을 줄이고 공용공간을 늘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손 회장은 “현재의 자치 공간 부족 문제는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모두 알지만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용과학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응용과학대학에 필요

<공과대학 총투표 결과>

신공학관 진행 상황 전면 공개 1,878(95.67%)
① 학교에 위임 85(4.33%)
② 찬성(단과대학별 토의지원금지율사용) 1,463(74.63%)
③ 반대(현상황유지) 498(25.37%)
④ 공학관 개보수 지금 당장 필요하다 1,454(74.07%)
⑤ 예산 고려, 불편해도 참는다 509(25.93%)

▲ 국제캠 총투표와 함께 진행된 공과대학 총투표 3개 건물, 총투표권자 3,284명 중 1,963명이 참가했다.

◀ 우주과학과 밴드동아리 ‘해산’은 전자정보대학 인근 공터에 임시 가설물을 동아리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자치공간의 수는 학생회실 5개와 소속 공식 동아리의 수 15개를 합친 20개. 하지만 자치공간의 대표적인 단과대학 학생회실 조차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실을 함께 쓰고 있다. 또한 공과대학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응용화학과를 제외하면 응용물리학과 동아리 ‘천무’의 동아리방 1개와 학생회실 3개를 합한 4개의 자치공간이 전부다. 우주과학과 소속 밴드 ‘해산’은 전자정보대학 밖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있다. 우주과학과 유일의 ‘동아리방’인 셈이다. 응용수학과 소속 동아리는 모두 공간을 배정받지 못했다. 공과대학에 있는 응용화학과는 학생회실 1개와 동아리방 2개를 배정받아 사용 중이다. 여학생 휴게실이나 다른 공용 자치공간은 꿈도 끌 수 없다. 응용과학대학 학생회 김형준(응용수학 2010) 부회장은 “매년 SPACE21사업 회의에 나가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학생들은 ‘동아리 방을 다른 과와 함께 쓴다’는 개념이 익숙하다. 7개 학과에 공식 동아리 수는 모두 30개. 동아리/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 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수가 5개로 가장 많은 스페인어학과와 한국어학과는 각각 2개와 1개씩 동아리방을 갖고 있다. 이마저도 소속이 전혀 다른 일본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러시아어학과 동아리들과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학과 학생회 변형진(한국어학 2013) 부과장은 “동아리방이 있는 곳은 공용이긴 하지만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라며 “동아리들의 절대 다수가 아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과방을 돌아가면서 쓰거나 강의실을 매번 빌린다”고 말했다. 각 학과마다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동아리가 있지만 완전하게 동아리방을 갖춘 학과는 없었다. 대부분이 1개에서 2개정도의 공용공간을 갖췄을 뿐이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스페인어학과 춤 동아리는 공간이 없어 복도의 거울을 보며 연습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국어대학 자체가 워낙 자리가 없는 상태라 도무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비슷한 상황의 체육대학 역시 소속 동아리 30개 중 15개가 공간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타 단과대학도 ‘자치공간’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생명과학대학은 소속 동아리 16개 모두 동아리방이 있다. 하지만 지하 1층의 협소한 공간에 컨테이너 칸막이를 설치해 만든 이 곳은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넓이다. 모든 동아리방이 한 복도에 개미집처럼 얹혀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예상진(식품생명공학 2010) 회장은 “자치공간이 비좁은 문제도 크지만, 현재 지하 자치공간은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위험한 구조다”라며 “공간 문제에 관해 학교 측과 수차례 논의해 보았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제대학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제대학 학생회 고상현(국제학 2013) 회장은 “자치공간의 대부분이 국제대학관과 멀리 떨어진 국제·경영대학관에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으로 써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접근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제캠 대부분 단과대학의 동아리들은 자치공간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실과 학생회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공과대학 행정실 송호남 행정실장은 “재정여건 상 공간관련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곧바로 큰 규모의 공간증설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현재로서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각 단과대학 별로 소속 구성원들과 상세하게 논의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①② 1967년 완공된 정경대학 곳곳에는 갈라짐이 나타나고 있다. ③④⑥ 기자재들의 노후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다. ⑤ 자치공간 몰려있는 정경대학 5층만 출창문이라 겨울철 추위에 노출돼 있다. ⑦ 갈 곳없는 기자재는 계단에 쌓인다.

▶ 1면에서 이어집

강의실과 실험·실습·실기실 그리고 전술실 등을 포함한 교육공간 대비 재적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경대학의 교육공간 1개 당 재적학생 수가 159.3명으로 서울캠퍼스(서울캠) 단과대학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정경대학의 재적학생은 총 2,548명으로 서울캠 단과대학중 가장 많다. 하지만 교육공간은 강의실 13개, 실험·실습·실기실 2개, 전산실 1개로 총 16개뿐이다. 교육공간 1개당 재적 학생수 2위인 음악대학(125.0명)이나, 이과대학(104.5명), 경영대학(94.0명)과도 차이가 있다.

단순히 공간이 ‘부족한’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경대학 공간개선TFT가 3월 한 달간 조사한 ‘건물 내부 시설물 및 기자재 현황’에 따르면 총 64가지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료의 내용은 사실 기본적인 문제들로, 창문이나 출입문의 훼손사례, 노후화된 기자재 등이다. 자료를 토대로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출입문에서 큰 소음이 발생했으며, 몇 군데 출입문은 심각하게 파손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창틀이 고장나 있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난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부족한 공간 문제 뿐 아니라

낙후시설 및 기자재 노후 문제 제기

기자재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강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화면이 맞지 않아 컴퓨터 화면이 일부 잘린 채로 표시되고 있었고, 부서진 교탁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기자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경대학 내 78개의 기자재 중 29개가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노후장비다.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는 실태조사와 함께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모두의 정경’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간문제를 정경대학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를 받은 학생이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꿀방(학생회실) 만들기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5대 요구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구안을 쓰고 이를 마블판에 붙이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정경대학 학생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한 요구안은 총 1,004표 중

493표(49.10%)를 얻은 낙후시설 개·보수였다. 정경대 공간대책 중·장기 수립이 208표(20.71%)로 뒤를 이었고, 동아리방·학회실 개선이 140표(13.94%), 언론고시반 이전과 제2의 꿀방만들기(10.15%)가 102표였다. 강의실 대여시스템 개선은 48표(4.78%)를 받았다.

정경대학 학생회는 실태조사와 모두의 정경 캠페인 결과 등을 종합해 지난 24일 정경대학 행정실장, 정경대학 행정 계장, 부총장실 행정과장, 기획예산팀 직원을 만나 예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학생대표 측에서 ‘특별예산편성’을 요구했고, 학교 측의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집행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장의 예산 집행은 어렵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황석종 과장은 “제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별예산이 집행되기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면서도 “정경대학 학생회의 요구가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정경대학 공간개선을 위한 운영위와 정경대학TFT의 활동에 대해 정경대학 윤제학 행정실장은 “낙후된 기자재나 강의실 이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지만, 다른 단과대학과 학생들이 필요한 언론고시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대학 강제상 학장은 “전체 단과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있지만 유휴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마침 이런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고민하던 차에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SPACE21에 포함돼있는 ‘글로벌타워’가 완공되면 정경대학만의 공간을 제공받는 안이나,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한두 층 가량을 더 증축하는 안을 고려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학생회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4월 첫째 주 중에 부총장, 정경대학 학장 학생대표 간 3자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대학 학생회 정대성(정치외교학 2009) 부회장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재적 학생 현황은 대학정보공시 2014학년도 2학기 재적학생 수 기준, 강의공간은 수강 신청전용 공간을 기준으로 했다.

DGIST 2015학년도 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디지스트’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admission.dgist.ac.kr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과 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New Biology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장학혜택 및 특전

분 류	내 용
납입금 연체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박사과정 : 1368만원 + @/년 석사과정 : 744만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책 연구과제 참여	DGIST 연구원의 국책 연구과제 공동수행 한국뇌연구원 및 DUP 유치에 따른 국책연구 과제수행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전공 오픈Camp

- 일 시 : 4.11(토) 11:30
- 참가대상 : 대학교 3,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 * 신청방법 : DGIST 입학 홈페이지 사전신청 (admission.dgist.ac.kr) ~ 4.8(수) 18:00까지
- * 참가자 지원사항 : 간단한 증명 및 기념품 제공, 시외교통비 지원, 시내교통편 제공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 어느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소단위 그룹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입학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전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 신청방법 : DGIST 입학 홈페이지 신청 (admission.dgist.ac.kr)

■ 원서접수 : 4.23(목) ~ 5.7(목) ■ 면접평가 : 5.25(월) ~ 6.3(수)

입학팀 : (053)785-5146 E-mail : admission@dgist.ac.kr

기획

'경희=20~24세·여성·문화예술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미래리포트' 워크샵서 발표 각 대학 외형 이미지 눈길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방누리 기자 nurib423@knu.ac.kr

우리 학교는 개교 65주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미래메시지)*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4월부터 연구에 돌입했던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연구결과 보고서를 3월 2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흥미로운 이미지가 하나 눈에 띈다. '각 대학 외형 이미지의 시각화'라는 제목의 이 이미지는 2014년 10월~11월까지 경희대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와 면대면 직접 설문조사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우리학교를 포함해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성별, 연령, 얼굴형, 체형, 키, 옷차림, 직업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경희 대생이 생각하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대학별 이미지를 도출해냈다.



새내기 이미지로 대변되는 우리학교 대학원 위상 희미하다는 방증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무색무취'였다. 2009년 우리학교 평판도 제고를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와 일선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우리학교 이미지에 대해 "평범한 이미지가 많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뚜렷한 개성이 없어 묻어간다는 이미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생각하면 '20~24세 여성, 유니섹스캐주얼이 어울리는 문화예술가'라는 특정한 이미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이번 조사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기에 충분한 합의를 갖는다. 이에 대학주보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째, 이미지에서 우리학교는 '20~24세'의 연령대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는 7개 학교의 이미지 중 가장 어린 이미지이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젊음이나 풋풋함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학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높은 연령대'라는 이미지는 해당 대학의 대학원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이미지 연령 대가 가장 높게 나온 서울대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이 가장 학술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대학의 주요 정체성이 '최고위 학술연구기관'임을 상기해볼 때,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비롯되는 소위 '공부하는' 이미지가 '새내기'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는 사실 쉽지 않다.

'새내기'의 연령층 이미지로 대변되는 우리학교의 모습은 대학원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볼 게연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우리대학이 '최고위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유효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로는 '직업'을 살펴보자. 타 대학들의 이미지가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연구개발직' 등과 같은 전문직의 모습으로 시각화된 것과는 달리, 우리학교는 '문화예술가'라는 광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학교에 타대와 변별되는 특성화 이미지가 뚜렷하게 구축돼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 있다. 타대의 사례를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세브란스 병원'과 '법학대학'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직'의 모습으로 표현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각각 '삼성(삼성전자)'과 '공과대학'의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의 인수 이후 실용주의 학풍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안게 된 중앙대는 '사무직'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물론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까지 소프트파워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읽어낼 수 있다. 다만 약간의 논리의 비약을 감수한다면, 이 조사결과는 타대의 그것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학내의 여러 요소들, 예컨대 '뚜렷한 이미지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든지, '주요 대학 병원들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경희대병원의 위상'이라든지, '사회에 경희 학풍을 유효하게 뿌리내리는 데 실패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끝으로, '여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위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사실 우리학교는 오래 전부터 주로 여성형 정체성으로 표현돼왔다. 이는 대학명칭 '경희'가 주로 여성의 이름에 쓰인다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학교의 대외 이미지와 대외 마케팅이 '벚꽃(놀이)', '아름다운 캠퍼스', '섬세하고 미려한 랜드마크 건축물' 등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무색무취'라는 결과로 구성원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2009년의 조사에서도 성별 이미지만큼은 '화사하고 깔끔한 예쁜 여성'으로 응답되어 있다.

대외마케팅 빛꽃·캠퍼스에 집중 전문적·진취적 이미지 약해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이든 아니든,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현대적 여성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전통적인 여성상' 개념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같은 여성형 인격으로 시각화된 연세대의 사례와 비교해보자. 연세대는 '의료전문가' 직종의 전문직

여성으로서, 활동하기에 편한 단발 헤어스타일과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신발의 경우 확실히 식별되지는 않지만 병원 내에서 하이힐 차림으로 하루 종일 근무를 서는 의료관계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활동하기 편한 단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문화예술가'라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에 짧은 치마, 하이힐로 이뤄진 모습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보고서는 우리학교를 '계란형의 얼굴에 키 171~175cm의 보통 체형'을 갖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외양은 이전 세대에서 여성을 규정할 때 흔히 묘사되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예술혼을 소유한 예술인의 이미지', 혹은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등과도 직관적으로 매칭 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오히려 '경희대생은 예쁘다'와 같은 막연한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돌아켜보면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분명히 존재한다.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40대 이후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얼굴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며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희대학교의 나이 이순(耳順)도 넘어 66주년이다. 이번 〈대학의 미래와 핵심 가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출된 위의 이미지를 그저 재미삼아 보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것이 혹시라도 학교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면밀하게 찾아보고 분석해서 보다 나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가꿔가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학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개교 15주년을 맞았던 1964년 10월 2일, 설립자인 조영식 학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개교 50주년과 100주년 기념식에 열려보라는 당부와 함께 본관 학원장 집무실의 금고에 보관해왔다. 1999년에 있었던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선 학원장이 생존해있었기에 지난 2012년 12월 21일에 열린 '매그놀리아 2012'에서 학원장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은 인간다움과 문명을 위해 대학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담고 있다.

3월 다섯째 주(3.30~4.3)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공공장고 채용면접	공군장교	3.30(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면접	일반/T/F	3.31(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설명회	일반/T/F	3.31(화) 16:00~18:00	청운관 B1-17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准)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및 취업행사 카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금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온비즈홀 354호~356호 제4법과대학 107-2호 취업진로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설정/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상담	이종규 교수 (취진전 연구장) 금융권, 대기류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네오관 103호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hb@kn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당 당일 날 최소 불가(상당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 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식 프린트해서 치감(필수)

자세한 신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n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n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n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안내, 연구업적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대폰 신청, 예비군전입 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정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스마트 기기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자체 앱이 안드로이드 및 iOS 앱을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로 검색해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nu.ac.kr>)에서는 종합시간표,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휴학과 복학 등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앱을 설치하면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으로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이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은 누구나 id@knu.ac.kr의 형태로 학교 이메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웹밀일 서비스(<https://mail.knu.ac.kr>)를 통해 국내외에서도 일반적인 상용 웹메일 서비스와 같은 방식의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밀일 후에도 이메일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희인의 일체감 확립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홈페이지 계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기준은 부서 및 교수 용도의 업무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6. 온라인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보안처 홈페이지(<http://ois.kn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센스'가 체결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n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거나 기비합니다.

8. 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9.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 중앙 백업

인터넷을 통해 상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출입증명서, 출입증명증명서, 수강

핀테크, 협업·융합·규제 개선이 선결 조건

특별기고 - 핀테크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최근 “연봉 반토막도 좋다, 금융맨들 짐싸서 핀테크로” 같은 기사들이 흥미롭다. 실제로 국내 핀테크 기업에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 채용 경쟁률이 보통 40:1이라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의 테마주가 핀테크라는 소식도 들린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애플페이와 같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간편한 지급결제, 송금, 대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클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융합 산업을 의미한다.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핀테크를 이용한 거래 규모는 매년 27%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금융업이 강한 영국에서는 핀테크 분야 거래가 매년 75% 이상 증가하고 있고 투자 규모도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앞선 플랫폼 기술의 장점을 토대로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83%가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사용자가 1억 8,000명이 넘고 연간 거래액이 80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

반면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과 융합 산업인 핀테크 산업에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핀테크에서 대출, 자산관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경쟁력 있는 신용관리, 리스크 회피, 투자 예측 등을 수행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금융 데이터 분석은 신용카드가 아닌 SNS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신용을 평가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로 면밀리닝과 통계적 처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금융 소프트웨어는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제상의 오류, 수수료 과다 인출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거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연금 투자, 세금과 같은 비용 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핀테크 플랫폼은 온라인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받고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대출 신청자의 금융기관 거래 내용, 현금 흐름, SNS 평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수분 내에 신용평가 및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훨씬 적은 투자비용으로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을 긁적히 늘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에서 대출 리스크 관리는 빅데이터와 소셜데이터 등

대안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존 은행들보다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를 모아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벤처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대출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핀테크 P2P(Peer to Peer) 서비스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한 협업, 융합활성화,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

실제로 중국의 알리파이낸스는 알리바바와 티몰을 통해 축적된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 직접적인 데이터와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 구매 후기, SNS 등의 간접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대상자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출의 불량채권 비율은 0.9%로서 기준 은행의 2%보다 훨씬 낮다. 핀테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해 자산을 관리해 주고 투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다양한 금융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 가능하며 핀테크에서 대출, 자산관리, 투자

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정확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점으로 급격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도 뒤늦게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루프레이터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카카오페이지는 국내의 금융 규제 때문에 결제대행 사업자 허가를 받은 LG CNS의 엠페리를 이용한 간접적인 핀테크 서비스이다. 뱅크월렛카카오는 간편한 소액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융 분야의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Active-X를 이용한 불편한 지급결제, 여러 관련 분야와의 협업 부족 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올해 3월 말부터 Active-X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향후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 융합활성화, 획기적인 규제 개선, 금융 기술 발전 연구, 핀테크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핀테크 산업은 한국의 금융지도를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1면에서 이어짐

나아가 신으로부터 나온 사물은 신의 일부이고 신은 사물들에 내재적이다. 신은 곧 자연이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일부다. 인간의 올바른 삶은 외부 사물들의 영향에 맞서 본질이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철저한 민주주의자였다. 그는 지적인 성장에 따라 인간의 완전성이 나누어진다고 하면서도 결코 귀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 정치적 권리인 인간의 지적, 도덕적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살려는 노력(코나투스)에 있고 이점에서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두의 코나투스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론은 『신학정치론』, 『윤리학』, 『정치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그의 정치적 사유의 과정에서 ‘양도 없는’ 사회계약이라는 근대 정치이론가들과는 다른 그만의 독특한 이론에서 완성된다.

“자유인은 선악개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독특한 점은 다양한 주제들이 기하학적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와 니체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욕심 많은 누이동생이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죽자 누이동생이 유산에 욕심을 내서 스피노자의 하숙집에 찾아와 유산 목록을 하숙집 주인에게 요구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깊지

참여마당

차현영
(경영학 2014)



여성이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유니레버가 아시아 10개국의 여성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한국 여성의 비율은 1%(200명 중 2명),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성형수술을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53%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일까?

그 원인 중에는 대중매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TV나 스크린에 노출되는 직업군 중에서도 특히 연예계에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직업적 속성상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에 주사를 맞거나 칼을 대는 행위를 점점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대부분의 연예인을 보면 쌍꺼풀이 있는 큰 눈에, 날렵한 코, 가름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힘든 얼굴이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는 매번 이와 비슷한 얼굴만 비춰지고 소비된다. 어느 샌가 대중매체가 정형화된 미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중매체가 설정한 미의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 외모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성형수술로 더 예뻐진 모습을 얻어도 내적인 문제는 그대로이다

모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대중매체가 양산한 미의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이 못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모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방면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뒤쳐지지 말 것을 교육(?)받아온 한국인들은, 어느새 자신도 텔레비전이 부각시키는 그 ‘예쁜 얼굴’이 되기 위해 선뜻 성형외과로 향한다. 그렇게, ‘보급형 미인’들이 탄생한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꽤 많은 여성들은 내적인 자기계발엔 소홀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성형수술을 통해 해소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런데 성형수술만이 자존감 회복의 유일한 해답일까?

그렇지 않다. 여성 대부분이 빠져있는 ‘자존감 결여’ 상태의 근원은 외모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형수술로 더 예뻐진 모습을 얻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하여도 진짜 자아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봉책’일 뿐이다.

성형수술은 자기계발의 방법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수술을 할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이 진정으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에 특별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문화/스포츠

현안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 쓰는 새울제 역사

방누리 기자 nurib423@knu.ac.kr

#. 2주 가까이 공강 시간 틈틈이, 또 저녁시간까지 할애해 연습한 율동이었다. 우리 학과의 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갔다. 어느덧 무대에 오를 시간, 굳어버리는 입매를 보고 앞에선 선배가 외친다. “연습대로만 하면 잘 할 수 있어!” 한 동작, 또 한 동작이 모였고 정신없이 율동은 끝났다. “잘했어! 최고야!” 라며 격려하는 목소리를 동기와 선배가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풀이’, 한 후배가 선배에게 묻는다. “선배, 그런데 새울제는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 25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경희교육한마당’, 흔히 ‘새내기율동제(새울제)’라고 불리는 행사의 모습을 각색 해봤다. 총 15개 단위의 새내기들이 올해도 각각의 학자구요안을 제시하며, 군무를 보여줬다. 이런 새울제의 시작은 별도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에 과거 우리신문의 기사들과 학생회활동을 했던 동문들, 총학생회를 통해 새울제의 역사를 짚어봤다.

새울제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에도 각 단위별로 경쟁하는, 유사한 형태의 율동경연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신명몸짓한마당’을 꿈을 수 있다. 하지만 ▲ 율동패가 중심이 됐다 ▲ 일부 단위만 참가했다 ▲ 시기가 5월 대동제였다 등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새울제와는 다른 행사를 이해하는 것이 적확해 보인다. 이후 변화 속에서 신명몸짓한마당은 대동제 기간 유통패의 ‘창작율동제’로 남게 됐다.

‘일부만의’ 2004년 행사에서 모두의 새울제로 발전 중

비록 새울제와 다른 행사이지만 신명몸짓한마당에 대한 A학과와 B학과의 온라인 게시물은 새울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일부 설명해준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후배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일부만을 위한 행사가 됐다’는 평가가 있고, 댓글에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단합을 위한 행사는 취지가 많이 훼들렸던 것으로 추리해볼 수 있다.

이후 2004년, 당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소속 학과/단과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기획했다. ▲ 모두가



신명몸짓한마당	새내기 유통제
~2003년	2004년 ~ 2005년
창작율동 유통제 중심	참여단위 소규모

쉽게 참가할 수 있어야 했다 ▲ 당시 대학사회에서 ‘민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유통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 유통패도 있었기 때문에 배우기 유리했다 등의 이야기를 조합해 볼 때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새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새울제. 참가하는 단위도 점차 늘어났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새울제가 해오름제, 즉 총학생회 발대식이나 학생총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의 결과보고와 병행됐었던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다수의 신입생이 모이는 자리의 ‘선전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해오름제’ 후 민중가요·율동패의 공연’이 공식처럼 자리 잡아져 있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간단한 현황보고만 진행하고, 바로 새울제를 속행하는 편이다. 다만 각 단위별로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구를 피켓이나 구호로 전달하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새울제 초기와 현재의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새울제는 ‘신명몸짓한마당’의 영향을 받아 ‘우승팀’을 가

렸다. 심사위원도 존재했다. 심사결과를 종합해 ‘으뜸상’ 혹은 ‘빛나다상’ 등의 상장을 1등 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새울제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순위 없이 모두 ‘독특한’, 예를 들어 ‘저세상’과 같은 종류의 익살스러운 상장을 받고 있다.

참여단위가 먼저 개최시기

물을 정도로 정착돼

총학생회 측은 “이제 매번 참가했던 과/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 먼저 개최여부를 물어올 정도로 정착화 된 상황”이라고 새울제를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참가하지 않는 단위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역시 “만 해당 단과대학의 학사일정 및 소속 과/단과대학 학생회의 참가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참여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새울제 12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도 늘 서로에게 진네는 “고생했다”, “같이 힘내자”는 응원과 격려의 문화는 굳건하게 기대한다.

연세대 꺾고 대학농구리그 첫 경기 승리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개막

윤지윤 객원기자 yjy530@naver.com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23일 연세대 서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71-57로 승리를 차지하면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 날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대학농구의 강호 연세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쿼터는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선취점으로 포문을 연 우리학교는 연세대의 지역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격을 전개했다. 우리학교 포워드들은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중 1쿼터에 가장 돋보인 선수는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였다. 최승욱 선수는 날카로운 슛 감각으로 자랑하면서 1쿼터에만 13점을 득점했다. 그와 반대로 연세대는 최준용을 제외한 포워드진이 힘을 쓰지 못했고, 우리학교는 스코어 24-17로 1쿼터를 앞서 나갔다.

2쿼터에는 우리학교의 수비가 돋보였다.

최창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로 구성된 가드진은 강한 압박 수비로 연세대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포워드진은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다. 최승욱 선수는 2쿼터에도 여전히 활약했던 최승욱 선수는 “초반에 슛감이 좋아서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더니 생각한 대로 경기가 잘 펼린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임수진 객원기자 ds005@naver.com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빛나라 젊음! 즐겨라 청춘!
열정을 후원하는 문화공간
KB국민은행 樂star

대학생 은행부문 선호도 1위 브랜드 (2014 한국대학신문 선호도 조사)

새출발! 새시작! 이벤트
장학금 받고, 신바람 나는
대학생활 하자!

이벤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에서 ‘KB樂star 통장’ KB Start통장, 주택청약종합대출, KB 스티어링 중 한가지 상품을 신규 기입한 만18세~만28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장학금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2015. 3. 13(금) ~ 4. 30(목) ■ 참여방법: 자동응모
■ 장학금 내용: 100만원(1명), 50만원(10명), 10만원(100명), 5만원(200명)
■ 당첨 발표: 2015. 5. 20(수) 예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이벤트존▶ 행운의 당첨자

樂star Zone

신개념 대학생 중심 복합 공간

樂star 클럽

다양한 FUN서비스 혜택을 드리는 2030 고객 우대 제도

樂star 협력 프로그램

KB국민은행과 대한민국 젊은이가 함께하는 배낭여행

樂star 블로그

2030 소통의 공간 SNS채널

친절한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문화를 즐기세요
경희대 스타벅스 맞은편 2층 02-3295-5913

樂star

경희대 목련점

* 장학금 수령을 위한 고계정보서의 연락처(학내내선번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2015.5.20(수)까지(장학금 수령기부 모는 연락처 오류로 연락불가 시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제세관과금은 KBStart통장, 주택청약종합대출, KB 스티어링 중 한가지 상품으로 제외되며, 순수 개인 영역만 인정됩니다.
* 이벤트 참여자는 KBStart통장과 KB 스티어링二者 모두 신규 기입한 만18세~만28세 고객으로 인정됩니다.
* KB樂star통장과 KB Start통장의 경우 예금보증보험에 따른 예금보험회사로부터 보호 하드는 본 은행에 있는 개인적 모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함께하여 인상 ‘최고전인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103호(2015.02.25)

KB 국민은행